日本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産業調整

朴 埈 卿

日本의 後進的 中小企業構造는 經濟의 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國際收支의 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後進的 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經濟의 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經濟構造와 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中小企業分野의 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對外指向的 技術·知識集約化 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中小企業分野의 産業調整이 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誘導·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I. 序

日本의 後進的 中小企業構造는 經濟의 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國際收支의 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後進的 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中小企業問題의 理解와 改善에 도움을 줄 것이다.

獨寡占 大資本과 中小資本간의 賃金隔差와의 支配從屬關係는 獨占資本主義 一般에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隔差構造와 寡占支配構造는 經濟史的 背景이나 經濟的·社會的 狀況에 따라 차이가 있다. 先進諸國과 비교하면 日本의 中小企業構造가 後進性을 나타냄을 부정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規模別 賃金隔差가 크고 規模別 就業者分布도 下位規模階層에 집중되어 있다. 독자적인 전문기술과 제품시장에 存立基盤을 둔 中小企業의 비중은 작고 賃金隔差에 의하여 존속이 가능한 小零細企業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寡占支配構造에서도 직접적 형태의 支配從屬關係가 상대적으로 강하

筆者 : 本院 硏究委員

다. 寡占的 大資本은 重層的 都給分業構造의 底邊을 형성하는 小零細企業의 支配를 통하여 賃金隔差를 우회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中小企業構造의 後進性은 中小企業 問題에 대한 社會의 認識에 반영되어, 經濟社會의 刷新에 기여하는 革新的 中小企業의 비중이 큰 미국에서는 經濟力集中을 완화하고 經濟社會에 活力을 부여하는 中小企業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비하여 後進的 條件(資本不足과 過剩勞動) 下의 不均衡成長으로 規模隔差가 확대되었던 일본에서는 二重構造의 解消를 위한 中小企業部門의 高度化가 政策課題로 제기되었다.

日本의 後進的 中小企業構造는 勞動市場構造나 社會福祉制度와도 관련이 있지만 주로 적극적인 產業調整을 통하여 개선되었다. 國際收支 黑字基調가 정착된 60년대말 이후 經濟의 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國際競爭壓力이 가중되고 石油波動 이후 日本經濟가 低成長基調로 移行하는 등 급변하는 企業環境이 個別企業의 自救勢力을 강화시켜 經濟의 技術·知識集約化가 加速되었다. 70년대초의 開放化에 대한 論議에서는 開放化를 일방적인 外部壓力의 受容으로 인식하고 開放化가 中小企業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開途國에 대한 特惠關稅의 供與, 엔貨의 大幅的인 切上 등으로 非價格競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輕工業分野에서는 廢業이나 倒產에 이른 中小企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中小企業이 環境變化에 적응하기 위한 高附加價値化와 事業轉換에 노력하고 관련 분야에서 胚胎된 新規企業이 새로운 經營感覺과 전문기술을 갖고 진입하여 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되고 製造業에서 中小企業이 점하는 비중도 60년대에 비하여 오히려 증대되었다. 產業調整이 급속히 진행된 輕工業部門에서는 低賃加工型 業種을 중심으로 中小企業分野가 縮小·淘汰되었으나 重工業部門에서 組立加工型 業種의 社會的 分業이 심화되면서 中小企業分野가 확대되었다. 技術·知識集約化가 진행되면서 社會的 分業의 性格도 변하여 賃金隔差를 이용하기 위한 工程間 分業은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에 바탕을 둔 技術的 分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支配從屬關係도 개선되었다.

70년대에 加工組立型 業種의 中小企業分野에서는 國際競爭壓力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고, 주로 競爭力強化를 위한 大企業의 外注合理化가 中小企業간의 技術競爭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 技能·技術集約的 分野에서 아시아 中進國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加工組立型 業種의 中小企業分野에서도 國際分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최근의 엔高 이후 日本企業의 多國籍化 및 產業協力의 확대와 더불어 일층 가속되면서 加工組立型 業種의 中小企業分野에서도 產業調整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海外生產 據点에서 部品의 現地調達이 확대되고, 부품의 역수입이 증가하며, 아시아 中進國과의 產業協力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中進國과의 國際分業과 產業協力으로 中小企業分野에서도 技術·知識集約化를 위하여 經營資源을 축적하고, 축적된 經營資源을 바탕으로 海外市場과 海外生產資源을 활용하는 國際化戰略이 중요해지고 있다.

Ⅱ. 國際化 過程

戰後 日本經濟의 成長過程에서 國際收支의 黑字基調가 정착된 60년대 말까지 외화부족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외화부족의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하여 日本政府는 金融·租稅面에서 輸出誘因을 제공하는 한편 外貨割當과 輸入數量制限에 의하여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부족한 외화는 수출상품의 생산 및 戰略産業의 성장에 관련된 原資材 및 資本財의 수입과 技術導入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었다. 育成段階의 전략산업과 경합하는 輸入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輸入數量制限下에서 발생하는 剩餘利益은 輸出入링크制를 통하여 輸出補助金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수입제한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된 60년대에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輸出誘因은 貿易收支의 累積黑字가 국제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70년대초에 폐지되었다. 수입제한이 축소되면서 국내산업의 保護·育成에 활용된 關稅는 70년대 전반까지 歐美諸國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70년대에 輸入制限品目의 축소와 關稅引下가 계속되어 1980년에 殘存輸入制限品目은 27개品目으로 축소되고 平均實效關稅率은 3.7%로 저하되었다.

〈表 1〉 戰後 日本의 國際化 過程

1949	日本엔의 換率 設定, 1달러=360엔
1950	外換貿易管理法의 規制下에 民間貿易 再開
1960	貿易外換自由化 大綱의 發表
1962	輸入制限을 negative list方式으로 轉換
1963	GATT 11條國으로 移行 (國際收支不安을 理由로 輸入制限을 할 수 없는 義務를 지게 됨)
1964	IMF 8條國으로 移行(國際收支不安을 理由로 外換制限을 할 수 없는 義務를 지게 됨)
	OECD 加盟 (貿易外去來, 資本去來의 原則的 自由化의 義務를 지게 됨)
1967	「케네디 라운드」妥結, 關稅平均 35% 引下
	對內直接投資 自由化(第1次 positive list에 의한 部分自由化)
1969	對內直接投資 自由化 (第2次)
	對外投資自由化(自動許可限度額의 擴大)
1970	對內直接投資 自由化(第3次)
1971	特惠關稅의 供與
	엔切上, 1달러=308엔
	對內直接投資 自由化(第4次)
	對外投資自由化
1972	工業製品關稅 平均 20% 引下
	對外投資 自由化範圍 擴大, 對外投資誘因 擴充
	外貨集中制 廢止
	輸出優待金融 廢止 決定
1973	對內直接投資 自由化 (原則 100% 自由化)
	變動換率制로 移行
1975	輸入制限品目 縮小(70年의 90品目에서 29品目으로)
1973-79	「東京 라운드」鑛工業製品關稅 平均 33% 引下
1980	外換法의 全面的 改正
	對內直接投資 原則自由化(許可制에서 申告制로)

民間貿易이 1950년에 재개되면서 商品輸出은 戰前의 比較優位를 반영하여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신장하기 시작하였다. 輸出物量은 196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했지만 1959년에 비로소 戰前의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輸出伸張은 주로 미국과 동남아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에 의존하였다. 공업제품의 수출에서 점하는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1955년에 68.2% 수준에 달했으며 1960년에도 58.6%에 머물렀다. 경공업제품의 수출신장에

는 중소기업이 크게 기여하였다. 1955년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60% 수준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77%를 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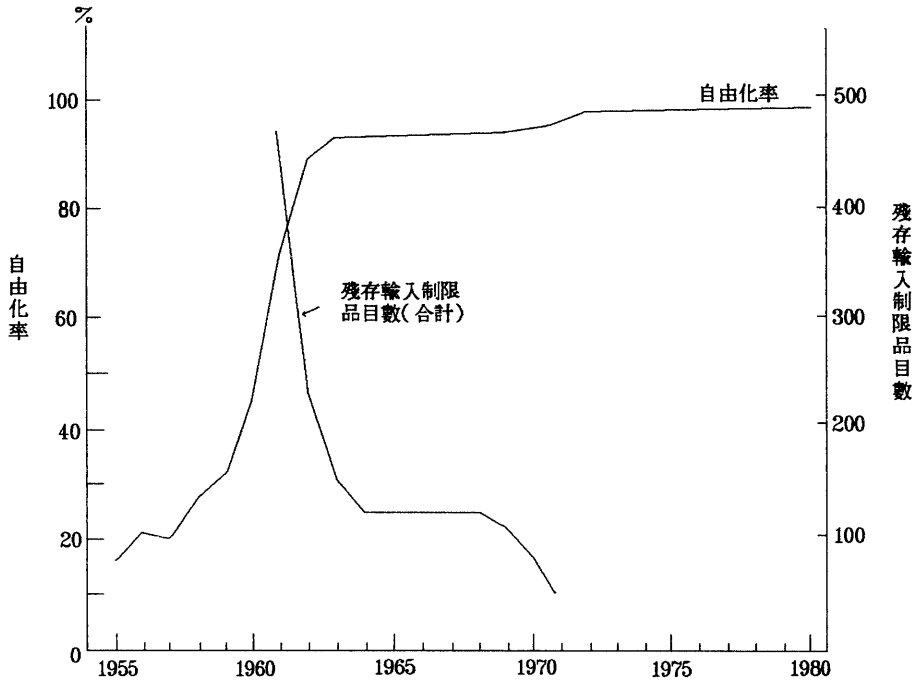
戰後의 經濟再建이 완료된 50년대 중반부터 重工業化가 추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었다. 제조업에서 점하는 중공업의 비중은 1955년의 44.6%에서 1960년에 56.4%로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設備投資와 技術導入을 바탕으로 勞動生産性이 크게 향상되고 國際競爭力도 현저히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입제한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1959년에 東京에서 개최된 IMF와 GATT의 年次總會를 계기로 先進諸國은 日本市場의 개방을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고, 日本政府는 다음해에 貿易外換自由化의 大綱을 발표한 후 2년간에 걸쳐서 輸入自由化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1961년에 自由化率은 90% 수준에 이르게 되고 다음해에 輸入制限은 Negative list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1963년과 1964년에는 GATT 11條國과 IMF 8條國이 되어 國際收支 不安을 이유로 輸入과 外換을 제한할 수 없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國內産業을 보호·육성하는 主要政策手段인 수입제한이 축소되면서 關稅政策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관세의 一括引下를 협상하는 「케네디 라운드」(1964~67)에 참여하여 1968년 이후 관세인하를 실시하였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70년대 전반까지 歐美諸國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加工段階가 높은 生産部門이 階段式 關稅構造(tariff-escalation)하에서 받은 보호의 정도는 상당히 높았다.

資本去來面에서는 1964년에 OECD에 가맹하여 資本去來의 原則的 自由化의 義務를 지게 되었으나 對內直接投資의 自由化는 1967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戰後에 日本政府는 資本不足의 완화를 위하여 對內證券投資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對內直接投資는 국내에 진출한 外國企業이 經營支配와 技術獨占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발전과 산업기술의 축적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엄격히 제한하였다. 1967년 이후 對內直接投資의 自動認可業種 및 外國人持株比率 등은 1973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日本經濟의 國際化는 國際收支의 黑字基調가 정착된 60년대말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60년대 중반까지 불안정했던 經常收支는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1968년부터 黑字規模가 확대되는 추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1970년에 중공업이 제조업에서 점하는 비중이 62.2%로 증대하였으며 수출비중은 72.6%로 확대되었다. 主要輸出商品이 美國市場에 급격히 진출하여 通商摩擦이 야기되고 貿易黑字의 누적이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日本政府는 日程을 단축하여 관세인하를 실시하는 한편 60년대초 이후 진전이 없었던 輸入自由化를 다시 실시하였다. 1970년에 輸入自由化率은 94% 수준에 이르고 殘存輸入制限品目은 90개 품목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貿易赤字가 확대되어 1971년에 달러의 金兌換 停止와 주요국의 通貨調整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엔貨가 대폭 절상되었다. 엔貨는 1971년에 달러當 360엔에서 308엔으로 절상된 후 1973년에 變動換率制로 이행하면서 다시 10% 절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日本政府는 엔切上을 회피하기 위하여 貿易黑字의 축

[圖 1] 日本의 貿易自由化 推移



註: 主要品目의 自由化 時期는 다음과 같음.
普通鐵鋼材·라디오·오토바이·버스·트럭(1961), 칼라TV(1964), 乘用車(1965), 칼라 필름(1971), 自動車 엔진(1972), 高級電卓(1973), 集積回路(素子數 200 以上)(1974), 컴퓨터 및 周邊裝置(1975)

資料: 通產省, 『日本の 貿易政策』, 1980년, p.55.
中井省三, 『自由化の 貿易と 外國換』, 關書院新社, 1961, p.137.

소에 노력하였다. 1971년에 開途國에 대한 特惠關稅를 도입하고 1972년에는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20%의 관세인하를 단행하였다. 對內直接投資의 自由化도 적극 추진되어 1973년에는 個別審査를 요하는 소수의 업종을 제외한 전면적인 자유화가 결정되었다. 石油波動의 충격으로 經常收支가 1973~75년간에 赤字로 反轉되었으나 1976년 이후 다시 黑字規模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70년대 후반에도 貿易黑字의 확대와 주요수출상품의 급격한 輸出伸張이 歐美諸國과의 通商摩擦을 심화시켰다. 通商摩擦을 가져온 主要輸出商品은 60년대말의 섬유제품, 칼라TV, 철강제품 등에서 자동차, 半導體, VTR 등으로 변하여 歐美諸國은 高度技術產業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일본은 輸出自律規制를 통하여 통상마찰의 수습에 노력하는 한편 「東京 라운드」(1973~79)에 적극 참여하여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수입절차의 간소화 등 非關稅障壁의 완화도 추진하였다. 한편 엔貨의 對달러 換率은 두 차례의 절상이 있은 다음에 265엔 수준에 안정되었으나 1973년말 이후에 계속된 엔切下로 1975년말에 305엔 수준에 이른 후 다시 엔切上이 지속되어 1978년

가을에는 176엔까지 저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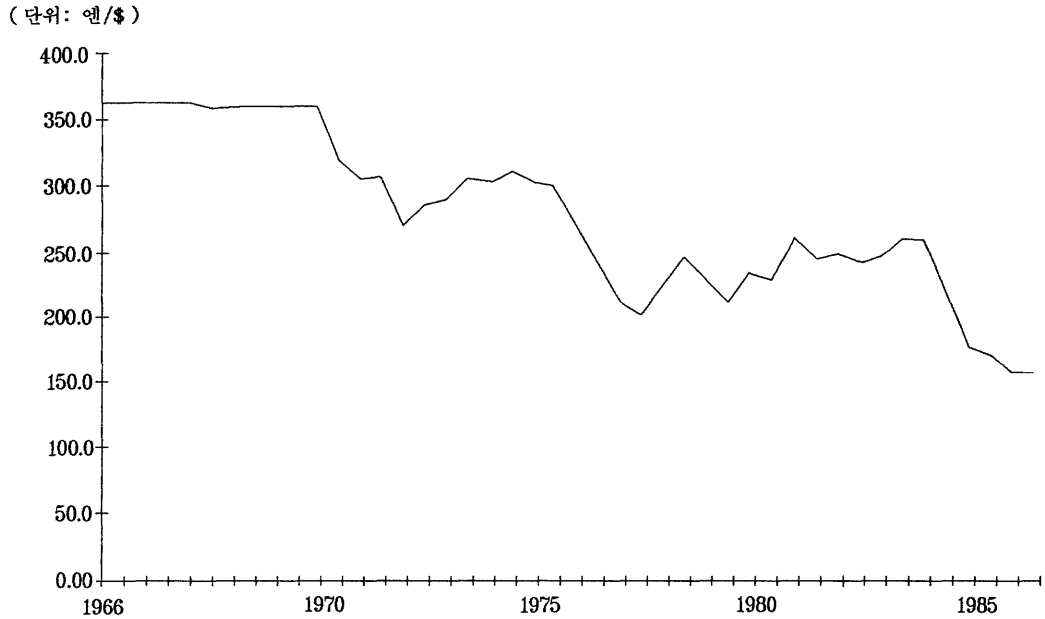
Ⅲ. 國內市場의 開放과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勞動生產性의 향상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이 比較優位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50년대말 이후 중공업이 선도하는 高度成長過程에서 賃金水準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賃金上昇을 生產性向上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는 人件費의 증가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서 比較優位를 상실해 가는 과정은 아시아開途國의 급속한 工業化에 의하여 더욱 가속되었다. 우선 일본의 主要輸出市場이었던 開途國의 국내시장을 상실하게 되었고, 아시아開途國의 工業化가 輸出面에서 성과를 나타내게 된 60년대로 들어와서는 미국시장에서 일본상품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분야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開途國은 後發의 利点인 最新機械設備의 導入과 低賃金勞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대자본과 연결된 販賣力에 의하여 輸出을 급격히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의 比較優位가 아시아開途國으로 이전되면서 商品輸出에서 경공업제품이 점하는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공업제품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中小企業의 역할도 급격히 축소되었다. 중공업부문에서 중소기업분야가 확대되면서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中小企業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점하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신장이 둔화되어 商品輸出에서 점하는 中小企業의 비중은 1960년의 56.9%에서 1965년에 44.6%로, 1970년에는 다시 35.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60년대에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의 輸出中小企業들은 賃金上昇과 開途國의 추격으로 점차 存立基盤을 상실하게 되었다. 60년대 중반에는 內需中小企業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초에는 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자유화는 지연되어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 이후 開途國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상품의 輸入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5년 이후에는 섬유, 의류 등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內外市場에 開途國商品이 진출하면서 경공업부문의 中小企業들은 처음에는 設備近代化와 生產合理化에 주력하였으나, 점차 品質·디자인의 高級化에 노력하게 되었고 1965년 이후에는 輸出市場의 多邊化, 內需市場으로의 轉換, 製品多角化 및 業種轉換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海外生產據点이나 海外委託加工이 對應策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에 와서 경공업부문의 中小企業에 대한 競爭壓力은 일층 가중되었다. 1968~73년간에 輸入制限品目의 축소, 關稅引下, 特惠關稅의 供與 등에 의하여 국내시장의 개방이 급속히 진행된 가운데 엔貨가 급격히 切上되어 非價格競爭力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공업분야의 中小企業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開途國의 商品이 內外市場에 진출하여 日本商品의 시장점유가 크게 잠식되었다. 엔切上을 生產性向上이나 費用節減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中小企業들은 엔切上을 輸出價格에 轉嫁하여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그러나 開途國商品과의 경쟁으로 輸出價格의 인

[圖 2] 엔貨의 對달러換率의 推移(1966~86)



상에도 한계가 있어서 輸出採算性이 크게 악화되었다. 開途國商品은 特惠關稅의 실시와 엔貨의 切上을 계기로 국내시장에도 유입되기 시작하여 內需中小企業도 타격을 받았다.

당시의 개방화에 관한 論議에서는 開放化를 일방적인 外部壓力의 受容으로 인식하고 개방화가 中小企業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했던 諸條件들이 거의 소멸되었으며 適正成長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比較生產費에 입각한 自由貿易을 통하여 資源分配를 효율화하고 國際競爭을 도입하여 國內生產資源의 能率을 향상시켜야 되는 內部壓力도 있었다. 相互依存關係가 심화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技術集約的產業으로 比較優位領域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技術集約化過程에 中小企業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大企業이 선도하는 高度技術產業의 競爭力向上과 이에 따른 賃金上昇 및 切上은 經營資源이 부족한 中小企業으로서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環境變化였으나 存續·成長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環境變化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石油波動의 충격이 加重되어 開途國의 추격에서 벗어나려는 中小企業의 노력을 제약하였다. 1974~75년간에 製造業의 中小企業 出荷額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石油波動의 餘波가 진정된 1976년 이후에도 경공업부문의 中小企業에 대한 競爭壓力이 가중되었다. 70년대 후반은 石油波動의 충격에 대한 調整期로서 環境變化에 적응하기 어려운 構造不況產業(平電爐, 船舶, 合板 등)이 顯在化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減量經營과 省力化投資에 의한 雇傭調整이 진행되는 가운데 成長과 設備投資의 伸

張이 둔화된 반면 消費支出이 증가하고 加工組立型 業種(一般機械, 電子機器, 輸送機器, 精密機器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하였다. 그러나 加工組立型 業種의 급격한 輸出伸張으로 貿易黑字가 누적되고 通商摩擦이 再燃되면서 1976~78년간에 엔貨가 급격히 切上되었다. 급격한 엔切上은 계속된 關稅引下와 더불어 경공업부문의 中小企業에 대한 경쟁압력을 가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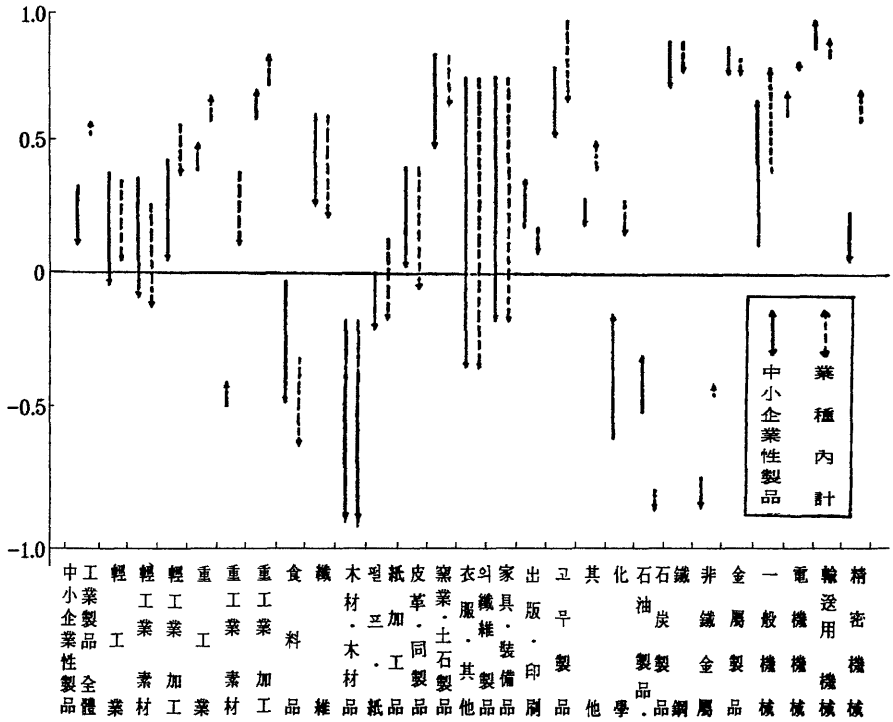
70년대의 國際化過程에서 급격한 環境變化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中小企業도 적지 않았다. 특히 開途國商品과 경쟁하는 低附加價値 業種에서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경쟁적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存立基盤을 상실하고 폐업이나 도산에 이른 中小企業이 많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中小企業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合理化, 高附加價値化, 市場轉換, 業種轉換에 노력하여 中小企業部門의 高度化가 진행되고 製造業 出荷額에서 中小企業이 점하는 비중도 60년대에 비하여 오히려 증대되었다.

中小企業部門의 高度化過程은 산업 전반의 技術集約化를 배경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경공업에서는 國內消費需要의 高度化를 배경으로 輸出市場에서 內需市場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開途國과 경쟁하는 경공업부문의 低附加價値 業種에서 輸出環境이 악화되면서 內需市場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였고, 內需市場에서도 低價輸入品과의 경쟁을 피하여 高附加價値 製品의 生產에 特化하는 中小企業이 증가하였다. 거대한 국내시장에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個性化, 多樣化, 高級化되는 消費需要를 배경으로 製品高級化, 製品差別化, 新製品開發 등이 진행되었다. 국내소비자의 엄격한 商品選擇이 品質·機能·디자인 등이 粗惡한 低價輸入品의 需要增大를 억제하는 자연적 장벽을 구축하고 국내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고도화가 가속되었다. 이와 같이 國內需要를 기반으로 非價格競爭力이 강화된 日本商品이 海外市場에 진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경공업제품의 輸出特化度는 크게 저하하여 80년대초에는 수입이 수출과 같은 규모로 증대하였고, 경공업부문의 성장에서도 輸出伸張의 기여는 감소하고 消費支出增加의 기여가 증대하였다. 中小企業業種의 경공업제품에서도 輸出特化度가 전반적으로 저하하여 1970~82년간에 商品輸出에서 점하는 비중이 18.4%에서 7.4%로 감소하였고 商品輸入에서 점하는 비중은 18.8%에서 26.1%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이 國際分業의 방향으로 產業調整이 진행된 경공업부문에서는 低賃加工型 業種을 중심으로 中小企業分野가 縮小·淘汰되었으나 중공업부문에서는 組立加工型 業種의 都給生產을 중심으로 中小企業分野가 확대되었다. 都給分業體制의 발전은 보호된 국내시장에서 母企業들간의 경쟁에 의하여 촉진되었으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된 60년대 후반부터 母企業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外注合理化를 강화하면서 일층 가속되었다.

戰後에 大企業의 기술수준이 技術導入을 통하여 급속히 향상되면서 中小企業과의 技術隔差가 확대되었으나, 50년대 중반 이후에 自動車, 電氣機械, 石油化學, 合成樹脂 등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大企業이 都給業體를 육성하면서 中小企業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加工段階가 높은 생산부문은 상당히 높은 보호를 받았고 대외경쟁력이

[圖 3] 中小企業 業種의 貿易特化度 推移(1971~85)



강화되어 수출이 신장되는 단계에서 實行關稅率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輸入自由化가 중공업 부문의 中小企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母企業간의 경쟁이 都給中小企業의 設備近代化와 生產合理化를 촉진시켰다.

資本自由化, 關稅引下, 엔切上 등에 의하여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전반에 都給分業體制의 발전이 가속되었다. 鐵鋼, 電氣機械, 自動車, 石油化學 등의 母企業들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大型設備를 도입하고 生產規模를 일층 확대하면서 都給分業體制의 정비에 의한 生產工程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中間組立段階에서 一括發注가 확대되고 外注管理機能이 重点外注業體에 위임되는 등 都給分業體制가 정비되면서 母企業의 技術的 要請을 소화하는 技術能力의 차이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階層分化가 진행되었다. 母企業이 요청하는 技術水準의 向上, 品質管理의 強化, 都給單價의 引下, 納期의 短縮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都給業體가 整理·淘汰되는 한편 重点都給業體의 育成이 강화되었다.

石油波動 이후 성장이 둔화된 70년대 후반에도 加工組立型 業種은 성장을 지속하여 都給生產이 확대되었다. 1966년에 제조업 事業體數의 53.3%를 점하던 都給中小企業의 비중이 1981년에는 65.5%로 증대하였다. 加工組立型 業種의 성장은 電子技術, 機電複合技術, 新素材技術 등의 新技術을 이용한 技術革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需要의 多樣化·高級化를 배경으로 新製品開發, 既存製品의 高機能化, 製品差別化 등에 의한 경쟁이 강화되고 이에

수반하여 多品種少量生產體制로 이행되는 製造工程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工程自動化 진행되었다. 이러한 技術變化로 인하여 都給分業體制의 재편성이 가속되었다. 外注業體에 대한 技術的要請이 고도화되고 外注管理의 합리화가 강화되면서 集中發注와 一括發注가 확대되어 中小企業의 階層分化와 新舊企業의 交替가 가속되었다.

이와 같이 國際化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大企業의 外注合理化를 통하여 中小企業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國際化過程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大企業의 技術集約化는 外注業體에 대한 技術需要의 高度化를 수반하고 이러한 技術需要를 확보하려는 國內中小企業간의 技術開發競爭에 의하여 中小企業部門의 高度化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공업제품의 수출에서 中小企業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다. 中小企業의 直接輸出도 증가하였지만, 都給生產을 통한 中小企業의 間接輸出이 크게 증가하였다. 大企業 業種의 輸出에서 中小企業의 間接輸出이 점하는 비중은 1973~82년간에 15.7%에서 19.1%로 증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공업제품의 비중이 큰 共存業種의 輸出에서도 中小企業이 크게 기여하였다. 중공업제품이 85% 이상 점한 共存業種의 輸出比重은 1970~82년간에 30.5%에서 3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中小企業이 47% 내외를 점하였다. 中小企業 業種의 輸出에서도 1970~82년간에 중공업제품의 비중이 31.2%에서 49.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中小企業 業種의 輸出比重이 감소하여 商品輸出에서 점하는 비중은 8.3% 에서 7.3%로 감소하였다.

Ⅳ. 海外生產의 擴大와 中小企業

60년대 후반에 纖維產業과 家電產業이 아시아地域에 進出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게 된 海外直接投資는 1969년의 對外投資自由化를 계기로 증가세가 가속된 후 1972~73년간에 급격히 증대하였다. 60년대의 高度成長期에 資本과 技術이 축적되어 海外進出의 經營基盤이 조성되고 賃金上昇, 勞動力不足, 立地難 등으로 國內投資與件이 불리해진 가운데 엔貨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대외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海外生產이 크게 확대되었다. 對外投資自由化의 進展, 엔高에 의한 海外投資費用의 低下, 開途國의 外資優待措置 등도 海外投資의 急增에 기여하였다. 海外生產據点은 아시아地域에 집중되었고 北美地域에는 市場浸透를 위한 現地販賣法人의 設立이 主流를 이루었다. 石油波動의 충격으로 감소하였던 海外直接投資는 1978~79년간에 다시 급증하였다. 石油波動 이후 經營成果가 부진한 海外法人이 정리되고 減量經營을 통하여 投資餘力이 회복된 가운데 엔切上과 通商摩擦이 再燃되면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아시아地域의 海外生產과 通商摩擦의 회피를 위한 北美地域의 現地生產이 확대되었다.

국내산업의 발전단계를 반영하여 海外生產은 商品輸出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勞動集約分野에서 시작되어 資本集約分野를 거쳐 技術集約分野로 이행하는 變化樣態를 보이며 지역적으로도 기술수준이 낮은 아시아地域에서 시

작되어 現地企業과 경쟁이 격심한 北美地域으로 비중이 이동하면서 유럽地域에도 진출하기 시작하는 變化過程을 나타냈다. 70년대에 纖維製品, 電子部品 등의 勞動集約分野는 東아시아에서 東南아시아로 海外生産의 비중이 이동하고 家電機器, 自動車 등의 資本集約分野에서는 海外生産의 비중이 아시아地域에서 北美地域으로 이동하면서 유럽地域에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加工組立型 業種의 大企業은 輸出活動을 통하여 現地市場에 침투한 후 現地生産으로 전환하였다. 現地販賣據点을 설립하여 現地市場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現地生産으로 전환하여 위험부담을 줄였다. 通商政策의 변화등 현지사정의 변화로 輸出伸張이 제약되면 국내에서 현지로 생산을 이전하였고, 需要特性이 강한 現地市場의 규모가 확대되면 現地市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隣接地域에 立地를 선정하였다.

海外生産이 확대되면서 70년대에 企業內 國際分業이 진전되었다. 각 지역의 생산조건, 특히 생산비용에 관련된 諸條件이 고려되어 국내에서 海外生産據点으로 생산이 이전되고 生産據点간의 去來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海外生産과 國際分業의 확대가 국내의 都給分業體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海外生産의 비중이 작아서 80년대 전반에도 5% 水準을 넘지 않았고 海外生産의 現地化도 서서히 진행되어 資材·部品의 現地調達比率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日本企業의 경쟁력이 강하여 국내생산품의 사용이 유리한 資材·部品이 많았다. 70년대말에 家電機器의 海外生産에서 資材·部品의 70% 이상이 일본에서 조달되었고, 現地調達에서도 日本系 部品業體와의 거래가 큰 비중을 점하였다. 현지에 진출한 部品業體도 대부분이 組立部品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들로서 資材·部分品을 일본에서 조달하였다. 2次都給業體가 진출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現地企業과의 都給去來는 品質, 精度, 納期 등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의 現地化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低賃勞動力을 이용하는 輸出生産基地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地域에서는 現地企業의 加工技術과 生産管理技術이 취약하여 品質과 精度가 요구되는 部品生産의 현지화가 부진하였다. 現地政府의 國産化 關聯規制가 심한 自動車 및 自動車部品의 海外生産에서도 品質, 精度, 納期 등에 문제가 많고 發注內容의 변경도 쉽지 않아서 생산의 현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海外生産에서도 資材·部品은 國內都給生産에 크게 의존하여 國內發注量에 큰 변동이 있었던 분야는 적었으나 母企業이 國際分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發注內容과 合理化 要請을 고도화하여 국내 생산품목의 高精密化, 高機能化, 複合化 등이 가속화되었다.

資材·部品의 輸入도 신장세는 급속하였으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家電製品의 部品輸入은 1978년에 購入·外注額의 0.25%에 지나지 않았다.

家電部品에서는 原價節減을 위한 노동집약적 工程의 海外移轉과 海外生産據点에서의 역수입이 큰 비중을 점했다. 自動車部品의 수입은 通商摩擦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수입으로 비중이 비교적 크게 늘어나서 1978년에 購入·外注額의 4%를 점하였다. 自動車部品은 주로 유럽地域에서 輸入되었고 아시아地域에서는 주로 基礎資材가 輸入되었다. 전반적으로 부품의 해외조달은 品質과 生産管理에서 문제가 있어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일본의 都給生產을 이용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日本進出, 國際都給, 部品購買 등도 증대하였다. 외국기업의 日本進出은 국내기업과 제휴하거나 합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外資系 企業은 部品購買나 都給去來에서 엄격한 契約關係, 去來의 短期性, 能率費用主義 등 國內慣行과 다른 去來行態를 보였다. 그러나 自動車工業에서와 같이 日本의 母企業과 제휴하고 생산을 전면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外注·都給去來에 변동이 없었다. 國際都給에서는 機器와 組立部品의 OEM生產이 많았다. 部品購買에서는 電子部品이 큰 비중을 점했고 自動車部品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電子部品의 輸出比重은 能動部品에서 30%, 一般部品에서는 50%에 달했다. 系列業體는 독자적인 部品輸出이 제한되었으나 독립된 專門部品業體들은 輸出增大에 적극적이었고 현지에 진출하는 事例도 많았다. 外國企業이 日本의 都給生產을 이용하게 되는 요인에는 生產費用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高品質, 高信賴性이 보다 중요한 要因이었기 때문에 再都給業體에 미친 영향도 단순히 受注量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合理化, 工程自動化, 技術水準向上 등으로 이어졌다.

70년대에 中小企業의 海外進出도 크게 진전되었다.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도 製造業全體와 같은 동향을 보여 60년대 후반부터 海外進出이 시작된 후 1972~73년간과 1977~78년간에 급격히 증대되었다. 海外直接投資에서 점하는 中小企業의 비중은 60년대 후반의 20% 수준에서 점차 증대하여 1973년 이후에는 40% 수준을 유지하였다. 中小企業의 海外進出에서는 아시아地域이 큰 비중을 점하여 1972~73년간에는 80% 水準에 달했고 1970년에도 57.6%를 점하였다. 70년대 전반에 아시아地域에 진출한 中小企業에서는 開途國과 價格競爭이 격화된 경공업분야의 中小企業이 主流를 이루었다.

경공업분야의 中小企業은 처음에는 대도시로부터 賃金水準이 낮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다음 단계에서 開途國으로 진출하여 低賃勞動力과 特惠關稅를 이용하였다. 輸出指向的 工業化를 추진하는 開途國이 外資企業에 의한 輸出增大를 기대하여 輸出團地를 조성하고 外資優待措置를 확충하였기 때문에 投資與件도 유리하였다. 그러나 현지의 賃金水準이 상승되고 現地企業이 일본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日本企業의 海外進出 基盤이 약화되어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非價格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이나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非價格競爭力을 확보하고 市場開拓과 情報蒐集을 위하여 歐美地域에 진출하는 中小企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中小企業의 海外進出에서도 중공업분야로 비중이 이동하였다. 中小企業分野에서는 通商摩擦이 드물었으나 母企業의 海外進出에 部品業體가 동반하거나 엔切上에 의한 競爭力低下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시아地域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輸出比重이 큰 中小企業중에는 長期戰略으로 國內販賣 및 輸出과 더불어 海外生產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업체도 많았다. 독자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中小企業은 國內市場의 占有率이 높지만 低成長基調로 전환된 國內市場에서는 성장이 제약되어 海外市場에서 經營資源을 적극 활용하는 海外戰略이 중요하였다.

〈表 2〉 中小企業의 海外進出 動機

(단위: %)

	先進國	東아시아	東南아시아
現地市場에 관한 販賣力 強化	78.6	37.6	43.8
貿易摩擦의 回避	2.9	3.0	3.1
逆輸入에 의한 競爭力 強化	11.4	42.9	23.4
第3國 輸出에 의한 海外市場確保	8.6	40.6	25.0
原料資源의 供給確保	2.9	7.5	28.1
現地勞動力의 利用	8.6	63.2	50.0
自社資本의 有效利用	7.1	10.5	12.5
自社設備 또는 技術의 有效利用	8.6	22.6	32.8
自社人材의 有效利用	—	9.0	12.5
外換變動 리스크의 回避	4.3	4.5	6.3
海外情報蒐集力의 強化	45.7	10.5	10.9
其他	1.4	3.0	3.1
不明	15.7	9.0	7.8

註 : 複數應答.

資料 : 中小企業事業團, 『中小·中堅企業 海外事業進出動向實態調査』, 1979.

V. 多國籍企業과 產業內分業

國內產業의 發展段階에 따라 國際競爭力의 構成要素가 변하고 이에 대응하여 해외의 市場과 生產資源을 이용하는 기업의 國際戰略도 변한다. 國際戰略의 變化過程을 보면, 각 지역에 소수의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 地域內 거점간에 連繫가 형성되는 단계로 이행하고 다시 地域本社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 지역내 거점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단계로 발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地域本社와 世界本社간의 連繫가 고도화되면서 전지역의 거점이 기능적으로 통합된다. 美國의 多國籍企業중에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기업이 적지 않으나 日本企業은 전반적으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美國企業은 국내산업의 成熟·衰退에 따른 競爭力低下에 대응하여 전세계의 市場과 生產資源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世界戰略을 전개하여 왔으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한 日本의 企業은 國內生產과 수출에 큰 비중을 두어 상대적으로 海外生產의 비중이 낮다. 1984년에 일본의 海外生產比重은 미국의 17.3%(1983년)나 西獨의 19.3%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4.3%에 머물렀다.

美國의 多國籍企業은 國內生產의 競爭力低下에 대응하여 尖端技術分野나 金融, 情報 등 서비스부분의 異業種으로 多角化하는 한편 個別分野에서는 競爭力強化를 위하여 世界戰略을 전개하여 왔다. 新技術·新製品의 開發力, 知名度, 販賣網에 의한 市場支配力, 世界戰略을 뒷받침하는 經營資源 등 미국기업이 우위를 지니는 競爭要素와 국제경쟁력이 강한 海外生產資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尖端技術製品에서 低技術製品에 이르는 광범위한 製品分野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最適地에서 생산하

기 위한 企業內 世界分業體制를 지향하여 세계 각지에 거점을 확보하고 거점간의 製品差別化 分業과 工程間 分業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기업 중심의 企業提携를 통하여 生產·販賣·開發面에서 產業協力을 강화하고 OEM 生產 등 國際都給을 확대하고 있다.

美國企業의 世界戰略에 의한 產業內分業과 產業內貿易의 확대는 개도국의 공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各國의 比較優位分野에 特化하여 工程間 보완성을 살리는 產業內分業을 통하여 先進國은 產業調整을 점진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 開途國은 輸出指向的 工業化를 촉진할 수 있다. 輸出指向的 工業化를 통하여 輸入代替指向的 工業化를 제약하는 市場問題가 해결되고 輸出市場의 엄격한 技術條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品質의 均一化와 技術의 準化가 진전된다. 그러나 產業內分業이 장기적으로 開途國의 產業發展에 기여하려면 現地企業의 技術習得이 수반되어 生產의 現地化가 진전되어야 한다.

多國籍企業의 企業內 去來는 開途國의 產業發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開途國에 진출한 多國籍企業의 子會社가 現地의 產業發展에 기여하려면 關聯產業의 現地企業과 去來를 확대하고 技術指導 등을 통하여 현지의 協力業體나 都給企業이 技術과 經營管理知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와 現地企業간의 國境內 國際都給(within-border subcontracting)은 現地企業의 技術能力에 따라 都給去來의 動機나 發注內容에 큰 차이가 있다. 發注企業의 去來動機에서는 現地企業이 보유한 特殊生產設備나 固有專門技術을 이용하기 위한 去來, 製品의 製造原價나 素材·部品의 加工費用을 절감하기 위한 거래, 일시적인 수요의 급증으로 生產能力을 초과하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發注內容에서도 發注企業이 제공하는 素材·製品을 發注企業이 제공한 生產設備를 이용하여 單純加工 또는 單純組立하는 경우로부터 現地企業이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설비를 확보하며 제품을 설계하는 경우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開途國에 진출한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와 現地企業간의 國境內 國際都給에서는 低賃金勞動을 이용한 生產費用의 절감을 위하여 노동집약적 단순가공이나 단순조립을 발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비교적 고위의 기술이 요구되는 製品生產이나 部品加工은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에서 內製하거나 현지의 外資系企業에 발주하며, 本社나 隣近의 제3국에 진출한 子會社나 外資系企業으로부터 자재·부품을 조달하기도 한다. 노동집약적 공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현지기업에 발주할 경우 生產費用이 증가하고 품질은 저하된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原材料의 가격이 비싸고, 노동과 설비의 생산성이 낮으며 현지시장이 작아서 生產規模가 經濟單位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開途國의 自動車工業은 인도와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多國籍企業의 수중에 있으며, 現地企業과의 去來는 現地政府가 부과하는 部品國產化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國產化政策이 國境內 國際都給의 확대를 통한 현지의 產業發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國產化率이나 企業數만으로 現地產業과의 관련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비교적 高位의 기술과 대규모의 資本投

資가 필요하고 엄격한 品質管理가 요구되는 主要部品은 外資系 組立企業이 內製하거나 組立企業과 같이 진출한 협력업체가 생산하며, 規模의 經濟가 중요하지 않고 工程이 노동집약적인 低位品 部品이 현지의 中小企業에 의하여 생산된다. 대부분의 中進國에서도 사정이 비슷하여 部品國產化는 주로 外資系 組立企業의 自體生產, 外資系 組立企業간의 部品交換, 外資系 部品業體의 生產을 통하여 진전된다. 外資系 企業은 技術指導와 經營管理硏修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現地企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現地市場이 협소하고, 聯關產業의 基盤이 취약하며, 技術과 資本을 축적한 現地企業이 드물기 때문이다.

現地政府의 무리한 國產化政策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現地企業을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外貨의 節約·獲得을 위하여 국산화가 조급히 추진되고, 이에 따라 國產化率은 제고되지만 製造原價가 상승하고 품질은 저하하여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국 정부의 개별적인 國產化政策은 각국에서 異種部品을 생산하고 교환하여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려는 多國籍企業의 戰略과 상충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인식한 現地政府는 輸出擴大를 조건으로 國產化率을 하향조정하기도 한다.

電氣·電子業種에서도 開途國에 진출한 多國籍企業의 子會社가 비교적 고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生產의 現地化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生產의 現地化를 제약하는 根源的 要因은 現地企業의 기술력이 취약하고 技術發展의 핵심적 요소인 자체적 技術習得(technical mastery)이 부진한 데 있다. 기술력이 취약한 現地企業이 주로 노동집약적인 단순가공이나 단순조립을 受注하게 되어 비교적 고위의 기술을 이전받는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기술이전이 반드시 자체적 技術習得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現地企業은 이전받은 기술을 소화하여 現地與件에 적합하게 개량하는 內在化 能力도 미약하다.

이전된 기술을 內在化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內在化 過程에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보다 상위의 技術分野로 比較優位領域을 확장해 가는 技術蓄積過程을 통하여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축소해 가는 中進國도 있으나, 대부분의 開途國은 技術蓄積過程이 원활히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低賃金이 主要競爭要素인 低位技術分野에 特化하고 있다.

產業內貿易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高位技術分野의 產業內貿易은 先進國간에 이루어졌고 先進國과 開途國간의 產業內貿易은 주로 노동집약적 工程을 開途國에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美國의 關稅法 第807條가 적용되는 수입의 통계를 보면, 對開途國 輸入의 비중과 被課稅額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다. 美國產 資材·部品이 사용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第807條에 의하여 해외에서 附加된 價値(被課稅額)에만 관세가 부과되는 데 第807條가 적용된 수입의 비중은 1966~83년간에 3.5%에서 8.4%로 증대하였다. 對開途國 輸入은 주로 美國企業의 現地生產據点에 의한 逆輸出이거나 現地企業의 保稅加工輸出로서 國際都給의 要素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越境國際都給(cross-border subcontracting)에서는 國境內 國際都給에서와 같은 技術指導가 어려워서 組立用 部品의 加工 등의 工業的 都給(industrial subcontracting)에서는 어느 정도 生產基盤이 조성된

〈表 3〉 國際都給의 類型

受注先의 立地 \ 受注內容	加工組立型 業種의 部品加工·製造	勞動集約的 纖維·雜貨의 加工·製造
國內에 진출한 多國籍企業의 子會社로부터 受注함	(國境內 工業的 都給) －빈번한 기술지도가 가능함 －중진국에서 가능함	
多國籍企業의 本社 또는 제3국에 진출한 子會社로부터 受注함	(越境 工業的 都給) －빈번한 기술지도가 곤란함 －일부 중진국에서 가능함	(越境 商業的 都給) －빈번한 기술지도 불필요함 －저임금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에서 가능함

中進國으로 발주되고 纖維·衣類·신발 등의 商業的 都給(commercial subcontracting)에서 開途國의 低賃金勞動이 이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中進國에서도 半導體, 電子機器·部品, 自動車部品 등 高位技術製品의 輸出에서는 外資系企業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대만의 輸出企業 上位 20社 중에서 電氣·電子業種의 企業은 대부분 外資系企業이거나 合作投資企業이며 국내기업은 織物·衣類 등의 경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中南美의 保稅加工輸出도 대부분이 外資系企業에 의한 것이다. 멕시코는 美國企業의 자동차부품 供給基地로 이용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도 주요 자동차회사는 多國籍企業이다. 브라질의 對先進國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多國籍企業이나 이들과 함께 브라질에 진출한 外資系 協力業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中進國 중에서 자체적 技術習得에 의한 技術蓄積過程이 크게 진전된 한국이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多國籍企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업종과 품목에 따라서는 輸出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국내기업의 技術水準과 聯關產業의 발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初期의 對先進國 保稅加工輸出에서는 노동집약적 工程이 주류를 이루었고 外資系企業의 비중도 높았으나, 국내기업의 技術蓄積이 진전되면서 外資系企業의 輸出比重이 저하되고 資材·部品의 국내조달이 확대되었으며 국내기업이 受注하는 越境 國際都給의 技術內容도 고도화되었다. 최근의 엔高에 의하여 越境國際都給의 技術內容은 일층 高度化되고 있다. 일본의 家電·自動車會社가 한국에 대한 部品量 發注를 증대하고 있으며 家電機器의 OEM 生產도 확대되고 있다. 美國企業도 日本에 발주하던 高位技術分野의 機器·部品生產을 한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유럽의 企業들도 企業提携를 통한 產業協力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日本企業이 발주하는 Machining Center의 組立, 美國企業이 발주하는 航空機部品의 生產 등 高位技術分野의 越境國際都給은 국내기업의 技術蓄積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美國의 多國籍企業은 최근에 아시아地域에서 海外投資를 확대하고 있다. 成長潛在力이 큰 아시아地域의 市場을 확보하기 위한 戰略的 요소도 있지만 企業內 世界分業에 의하여 競爭力을 강화하려는 투자가 큰 비중을 점하

〈表 4〉 美國의 輸入構造變化

(단위: %)

	製品의 輸入比重	製品輸入에서 점하는 高位技術製品의 比重	高位技術製品輸入의 地域別構成			
			先進國	日 本	開發途上國	아시아中進國
1980	51.3	21.6	68.9	28.0	30.6	16.8
1981	54.6	22.4	70.0	31.7	29.7	16.2
1982	59.1	22.6	68.7	32.6	31.0	17.1
1983	63.3	23.9	66.0	34.9	33.7	19.9
1984	68.0	25.3	68.2	37.4	31.6	18.9

고 있다. 世界戰略下에서 生產基地 再配置의 일환으로 아시아地域의 生產據点을 확충하고 있으며 아시아中進國의 기업과 資本·技術提携에 의한 產業協力도 확대하고 있다.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直接投資의 殘高는 1980~84년간에 84억달러에서 162억달러로 倍增하였다. 특히 日本企業에 대한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高位技術製品의 생산에서 技能·技術集約的인 工程을 아시아中進國으로 移轉하고 있다. 多國籍企業의 海外生產據点은 現地의 要素賦存에 적합한 生產方式을 취하여, 美國系企業의 賃金水準과 資本裝備率은 日本, 아시아中進國 및 ASEAN諸國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지의 要素賦存에 따른 生產技術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어 高位技術製品의 海外生產은 日本과 아시아中進國에 집중된다. 아시아中進國에 진출한 美國系企業은 현지의 賃金水準이 상승함에 따라 勞動集約的 工程은 後發開途國으로 이전하지만 技能·技術集約的인 工程은 현지에서 보다 資本集約的인 生產方式으로 전환한다.

70년대 중반 이후 重工業化가 진행되면서 高位技術製品의 생산이 급속히 증대된 아시아中進國은 최근에 와서 技能·技術集約的인 工程에서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高位技術業種에서 日本과 아시아中進國이 경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美國의 多國籍企業이 日本에서 아시아中進國으로 海外生產을 전환하는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1985년 9월 이후의 엔高에 의하여 일층 가속화되고 있다. 加工組立型 業種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生產性과 品質에 의하여 전세계의 生產基地로 역할해 온 日本의 기업도 최근의 엔高를 계기로 中進國과 日本의 기술수준이 근접한 분야에서는 水平的 分業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Ⅵ. 日本企業의 多國籍化와 都給分業體制의 變化

日本의 產業發展 樣態를 보면, 輸入代替的 生產의 확대로 시작하여 수출이 伸張하고 다시 現地生產으로 전환한 후 海外生產에서 철수하기 시작한다. 現地生產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시아地域으로부터 수입이 서서히 증대하고 海外生產의 現地化와 더불어 當該業種의

〈表 5〉 日本의 用途別 地域別 製品輸入構成

(단위: %)

	1970	1979	1980	1981
〈總輸入의 用途別 構成比〉				
非耐久消費財	4.9	11.7	9.3	9.9
耐久消費財	7.4	9.9	8.5	8.2
勞動集約的 中間財	9.4	14.7	12.9	11.8
資本集約的 中間財	40.9	37.7	41.0	40.7
資 本 財	37.5	26.0	23.2	29.3
〈用途別 輸入중에서 아시아中進國의 輸入比重〉				
非耐久消費財	26.5	49.4	41.9	49.0
耐久消費財	4.3	24.2	24.2	20.7
勞動集約的 中間財	18.7	24.3	19.6	19.8
資本集約的 中間財	1.0	7.6	7.3	8.3
資 本 財	1.4	1.6	6.8	7.8
〈用途別 輸入중에서 ASEAN의 輸入比重〉				
非耐久消費財	1.6	1.9	2.2	1.8
耐久消費財	0.1	2.2	2.9	2.5
勞動集約的 中間財	3.5	4.8	4.7	4.7
資本集約的 中間財	4.7	5.5	5.4	4.7
資 本 財	0.1	1.1	1.3	1.2

輸入比重이 증가한다. 日本企業의 직접투자에 의하여 일본 국내에 축적된 生產技術과 經營管理知識이 현지에 이전되고, 자체적 技術習得과 經營管理知識의 축적이 빠른 中進國에서는 日本系企業의 現地化가 진행된다. 現地企業이 經營權을 인수하고 現地企業이 생산하는 資材·部品의 品質이 향상되어 對日依存이 저하한다. 資本面에서도 出資比率의 低下로 시작하여 철수로 이어진다. 個別業種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產業全體로서는 中進國과의 工程間 分業과 製品差別化 分業이 확대된다. 技術力과 資本力에서 日本企業이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는 현지에 독자적으로 生產據点을 설립하고, 日本企業이 우위에 있으나 現地企業의 技術力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분야에서는 資本·技術提携를 맺고 OEM 生產契約을 체결하며, 現地企業과 경합하는 分野에서는 서서히 生產規模를 축소해 간다.

최근의 엔高로 인하여 일본과 中進國이 경합하는 분야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產業內分業이 일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우위를 확보해 온 加工組立型 業種의 高位技術分野에서 部品加工과 組立工程이 아시아中進國으로 이전될 것이다.

최근의 엔高를 계기로 日本企業에서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販賣·生產網을 확보하고 企業內 世界分業體制를 구축하는 世界戰略의 전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地域 生產據点의 輸出이 北美地域의 現地生產으로 대체되어 왔으나 이러한 추이는 최근의 엔高를 계기로 일층 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地域의 海外生產의 역

할이 변할 것이다. 70년대 전반에 아시아地域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노동집약적 분야는 70년대말부터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海外生産의 비중이 아시아地域에서 北美地域으로 이동하였다. 纖維業種은 해외시장에서 國內市場으로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高級品分野에서 北美·유럽地域의 現地生産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工程이 아시아地域에 이전되었던 電氣·電子業種에서도 아시아地域에서 北美·유럽地域으로 海外生産의 비중이 이동하는 추이가 나타나지만, 高位技術分野가 성장기에 있는 電氣·電子業種에서는 아시아進出이 비교적 높은 伸張勢를 유지하고 있다. 一般機械와 自動車에서는 아시아進出이 北美進出과 같은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電氣·電子業種이나 自動車工業의 아시아進出은 과거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 과거와 같은 低賃金勞動을 이용하는 輸出生産基地의 성격은 退化되고, 企業內 世界分業體制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요소가 강해질 것이다. 家電業體의 경우에는 이미 多國籍企業化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自動車工業에서도 세계적으로 自動車業界의 재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日本企業도 世界企業으로 성장하기 위한 世界戰略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地域의 海外生産은 國內生産보다 生産費用面에서 이점이 있지만, 北美·유럽地域의 現地生産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低賃金에 의존하는 生産方式에서 高附加價値製品의 生産으로 전환해야 되므로, 世界戰略의 일환으로 아시아進出이 고려된다.

企業內 世界分業은 地域別 要素賦存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아시아地域의 現地生産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生産方式을 취하며 北美地域의 現地生産은 高賃金을 工程自動化로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자동화에 의한 勞動·資本의 代替可能性이 다르다. 纖維業種과 같이 代替範圍가 좁은 경우에는 아시아地域에서 北美地域으로의 전환이 제한된다. 반면에 자동화된 대량생산체제를 北美地域에 구축한 자동차의 경우는 海外進出의 初期段階부터 北美地域으로의 전환이 가속되었다. 아시아地域의 海外生産에서도 化學, 自動車, 一般機械 등은 자본집약적이며 纖維, 電子部品, 精密機器 등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다. 一般機械는 아시아지역에서도 자본집약적이지만 北美地域에서도 자본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一般機械는 差別化製品의 多品種少量生産이 많아서 要素賦存에 따른 生産方式의 전환이 제한된다. 自動車나 칼라TV와 같은 標準化된 製品의 大量生産에서 勞動節約의 여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工程은 아시아지역에 立地하고 자본집약적인 工程은 北美地域에 立地하는 형태로 企業內分業이 이루어진다. 日本企業의 海外生産比重이 아시아地域에서 北美地域으로 이동하는 것은 日本企業의 국제경쟁력이 노동집약적 工程이나 製品에서 자본집약적 工程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다.

아시아地域에서도 低賃金의 이점이 소멸되어 가는 中進國에 진출한 日本企業은 현지에서 노동집약도를 낮추어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後發開途國으로 이전한다. 要素代替性이 큰 電氣·電子業種에서는 工程自動化가 진행되고, 自動化가 곤란한 분야는 後發開途國으로 이전하거나 철수한다. 工程自動化는 生産品目의 高附加價値化를 수반하며, 高附加價値化 製品으로 전환하면서 자동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현지의 賃金水準이

상승하면 日本國內에서 노동집약적 공정의 자동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동일한 제품의 생산에서도 海外生產據点과 國內工場의 自動化率이 다르다. 최근의 급격한 엔切上으로 日本과 아시아諸國간의 賃金隔差가 다시 확대되었으나 低賃金勞動을 이용하기 위한 아시아進出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高位技術分野에서 中級品生產이나 技能集約的 工程이 아시아地域의 생산거점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採算性 檢討에서 단순히 賃金水準만이 고려되지 않고 勞動의 質, 특히 技能·技術集約的인 생산에 적합한 熟練度, 工程自動化에 관련된 電算要員의 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日本企業의 國際戰略이 최근의 엔高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加工組立型 業種에서 日本企業의 국제경쟁력을 지지해 온 都給分業體制에도 과거와 다른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엔高 이후에 海外生產의 성격이 변하면서 母企業이 資材·部品의 現地調達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地域에 輸出生產基地를 확보하는 輸出補完型 海外生產에서 貿易摩擦을 회피하기 위하여 北美·유럽地域에 立地하는 輸出代替型 現地生產으로 전환하면서도 國內都給生產의 국제경쟁력이 강하여 資材·部品의 現地調達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엔高로 인하여 국내생산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北美·유럽地域의 現地生產이 단순한 貿易摩擦의 회피보다는 生產費用과 販賣價格을 고려하는 企業內國際分業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資材·部品의 현지조달도 확대되고 있다. 現地政府가 요구하는 國產化率은 美國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평균이 50% 水準에 이르고 있으며 제고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엔高 이후의 現地調達擴大는 現地政府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현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地域에서도 現地通貨의 平價切下로 인하여 資材·部品의 對日依存이 높은 업종에서는 국산화가 기업의 사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日本系企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生產의 現地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地工場의 CKD(Complete Knock Down)生產이 一貫生產으로 확충되고 競爭關係의 母企業들이 현지에서는 공동으로 都給業體를 活用·育成하고 있다. 資材·部品의 現地調達比率이 높은 기업에서도 現地調達比率이 5%를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향후 수년간 現地調達比率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海外生產의 擴大 및 生產의 現地化와 더불어 母企業은 資材·部品과 製品의 輸入도 확대되고 있다. 國內都給業體에 發注하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기도 하고 自社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OEM 生產하여 逆輸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中小企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역수입을 위한 合作投資先을 구하는 中小企業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部品輸入은 1979~86년간에 倍增하여 商品輸入의 4%를 점하게 되었고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수년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中進國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非價格競爭力에서 日本企業과 경합하는 분야가 加工組立型 業種의 都給生產에서도 확대되고 있고 경합하는 시장도 輸出市場에서 日本의 국내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日本이 세계의 都給生產基地로서 역할해 온 加工組立型 業種에서도 日本企業이 競爭力強化를 위하

여 아시아中進國과 工程間 分業을 확대해야 되는 分野가 증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品質/價格)이 가장 유리한 資材·部品을 조달하는 것이 母企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폐쇄적이었던 都給去來의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國際的 企業提携도 都給去來의 開放化와 國際化를 가속시키고 있다. 多國籍企業간의 商品別·市場別 紐帶가 강화되면서 企業提携의 형태도 기술제휴나 판매제휴 등 부분적 제휴에서 硏究開發로부터 都給生産에 이르는 모든 經營活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전면적 제휴로 변모하고 있다. 개방화와 더불어 一括發注化와 技術去來化가 가속되고 있다. 工程別·部品別 分散發注가 축소되고 製品別·시스템別 일괄발주가 확대되고 있다. 低位技術工程의 賃加工的 都給生産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대량생산체제에서 工程別·部品別 分散發注가 지니는 量産效果가 海外生産의 확대와 생산의 多品種少量化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母企業과 都給企業간의 生産同期化, 短納期化, 高品質化 등도 一括發注化를 가속시킨다. 一括發注化는 都給分業生産이 工程·設備分業生産에서 技術分業生産으로 이행하는 技術去來化와도 관련이 크다.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協力業體와 技術的 紐帶가 긴밀해야 된다. 協力業體를 포함한 全社的 VE活動을 추진하며, 開發段階에서부터 協力業體를 참여시켜 VE에 의한 비용절감폭을 극대화한다. 製品壽命의 短縮과 製品의 多樣化에 따른 母企業의 設計·開發能力의 부족도 技術分業化를 가속시킨다. 이와 같이 최근의 엔高에 의하여 技術開發力을 지닌 전문업체 중심의 技術分業體制로 이행하면서 重層的 都給分業體制가 붕괴되고 있다.

Ⅶ. 結　言

經濟의 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經濟構造와 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中小企業分野의 産業調整過程에는 日本의 經驗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전반의 對外指向的 技術·知識集約化 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특히 中小企業分野의 變動, 規模別 分布의 上向移動, 社會的 分業의 深化 등 國際分業의 확대에 따르는 中小企業構造의 趨勢的 變化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中小企業과 관련된 經濟運用의 基本方向은 이러한 中小企業分野의 産業調整이 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誘導·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원貨切上과 賃金上昇이 단기적으로는 國際競爭力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國際分業構造의 변화에 대응하는 企業體質을 강화시켜 適正成長의 지속에 기여할 것이다. 經濟運用에서 중요한 것은 원貨切上 및 賃金上昇과 技術·知識集約化간의 好循環을 유지하는 것이다. 貿易黑字가 확대되면 원貨切上이나 賃金上昇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海外要因에 의하여 換率과 貿易收支가 변동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貿易黑字의 확대와 持續的 원貨切上의 根因은 技術·知識集約化 過程에서 生産性增加를 뒤따르는 賃金上昇의 後行性이라 할 수 있다.

貿易黑字의 확대와 지속적 원貨切上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業種別·規模別 生產性隔差로 인한 產業調整의 문제이며, 특히 環境變化에 대한 적응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產業調整에서 經濟的·社會的 문제가 제기되기 쉽다. 大企業은 異業種多角化나 國際化戰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技術·知識集約的 分野로 전환할 수 있는 經營資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中小企業은 大企業이 선도하는 技術·知識集約化에 의한 원貨切上과 賃金上昇에 대응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生產性向上과 事業轉換을 추진할 수 있는 經營資源이 충분하지 않다. 中小企業의 產業調整에서 사회적 마찰이 고조되면 원貨切上의 지연과 賃金隔差의 확대를 통하여 產業調整이 지연될 수 있다. 利益集團의 영향을 받아 社會政策的 관점에서 운용되는 產業政策도 產業調整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國際分業을 지향하는 產業調整은 불가피하여, 產業調整의 지연으로 누증되는 產業調整 壓力은 결국 內外與件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대폭적이고 급진적인 產業調整으로 나타 날 것이다.

政府는 利益集團의 壓力이나 단기적 고용문제를 의식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限界業種과 限界企業을 溫存시키는 經濟運用을 지양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比較優位分野의 변동에 따라 中小企業分野의 人力을 재편성하는 產業調整이 市場機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誘導·支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政策手段의 선택에서도 직접적 개입을 지양하고 環境變化에 적응하려는 中小企業의 自救努力을 강화시키는 競爭的 企業環境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自救努力이 성과를 얻도록 經營資源의 制約을 완화하는 產業下部構造의 擴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經濟의 技術·知識集約化 過程에서 탈락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이 확대되어 社會的 摩擦이 증대되지 않도록 經濟運用에서 中小企業의 自救努力을 지원하는 產業下部構造의 擴充에 관련된 施策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OECD,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A New Form of Investment," Dimitri Germidis(ed.), Development Centre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1980.

Richard Caves,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2.

岡本康雄, 「多國籍企業と日本企業の多國籍化(I)」, 『經濟學論集』 53-1, 1987.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 (編), 『經濟構造と中小企業』, 同友館, 1976.

小宮陸太郎·奥野正寛·鈴村興太郎 (編), 『日本の產業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84.

坂本光司, 『經濟構造調整と今後の下請企業政策』, 公正取引 No. 445, 1987.

龍澤菊太郎 (編), 『中小企業の海外進出-經濟

國際化への 積極的 對應』, 有斐閣, 1982.
藤田敬三·竹内正巳(編),『中小企業』 有斐閣, 1987.
山澤逸平,『日本の經濟發展と國際分業』 東洋經濟新報社, 1984.
渡邊進,「開發途上國の經濟開發と國際下請」,『大阪經大論集』, 第174號, 1986.